

해남군, 출산·양육 지원정책 강화... 아동 1인당 1.1억

출산지원사업 통합·일원화
해남아이 키움수당 등 신설
“체감형 정책 확대해 나갈 것”



해남군청 전경. (원형사진)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군이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군은 출산지원사업을 통합·일원화해 해남아이 키움수당 신설하는 등 2026년생 기준 아동 1인당 18세까지 총 1억 1482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초음파 검진비, 임신 영양지원, 기저귀 구입비 등 10종의 사업을 통합해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168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생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12개월까지 0세 아동에게는 신생아

양육비가 총 200만원 지원된다. 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가정보육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2만원은 변동없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1세아의 경우 월 50만원, 아동수당은 월 12만원씩 8세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출생기본소득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4320만원이다. 출생기본

소득은 지난 2025년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해남군 자체 시책으로 초중고 입학 축하금이 각 30만원씩 지급되며, 가정보육시 2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20만원씩, 10세~15세 아동에는 초·중·고 등 월 10만원, 중등 월 5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된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이 일원화되면서

해남군의 출산·양육 지원은 출생부터 18세까지 신생아 양육비, 해남아이 키움수당, 출생기본소득,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9종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1억 1482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비 지원과 다자녀 양육 장려금 60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국·군비 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와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해남아이 가치키움 프로젝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등을 통해 원스톱 안심 출산환경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출생 축하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산청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야 한다. 재산은 청년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이뤄지며 총 지원액은 480만원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여행가는 달’ 프로모션

울진군은 ‘2026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코레일과 협력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코레일을 통해 울진 여행 상품을 예약한 뒤 성류굴, 국립울진해안과학관, 왕피천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에서 QR 인증을 하면 열차 운임 전액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또 관광객이 이용료의 60%를 지원해 4시간 기준 약 3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 해설과 맛집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속박세일페스타’를 통해 최대 7만원까지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울진(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2026 KEL’ 전 종목 유치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

우수한 인프라·정책 지원 결실
“글로벌 이스포츠 중심지 발전”

경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전 종목 유치에 성공했다. 3개 종목을 동시에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

KEL은 이스포츠 대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연구팀 육성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 도입된 전국 단위 공공리그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참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전 종목 유치권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2024년 5월 개소한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의 우수한 인프라와 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지난해 9월 ‘이터널 리턴 슈퍼워크’ 개최 당시 약 16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개관 이

후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당시 대회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일정은 4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5월 FC 모바일 개막전, 10월 이터널 리턴 슈퍼워크 순차 진행된다.

경남도는 리그 유치와 함께 지역 연구팀 지원도 병행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G.N. Revenant NOVA’, 이터널 리턴 ‘경남 스파클 이스포츠’, FC 모바일 ‘경남 웨이브(WAVE)’ 등 3개 연구팀에 훈련비·출전비·피복 및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관광장은 “전국 유일 3종목 동시 유치는 경남이 이스포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와 성공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스포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본격화

마스터플랜 확정... 5년간 503억 투입

부산시가 앞으로 5년간 503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전략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분석·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를 포괄하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 강화와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4대 전략 10개 실행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데이터 개방 서비스 효율화 ▲데이터 관리 체계화 ▲민간 주도 데이터 산업 진흥 ▲데이터 핵심 인재 양성이 4대 전략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확대, 행정 전반에 흠어진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데이터기업 육성 및 핵심 산업별 생태계 조성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 데이터 문해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전사적 메타데이터 관리와 컨트롤 타워 기능도 구축해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데이터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민간 전반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도출된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을숙도 생태공원 관광상품 선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손잡고 을숙도 생태공원을 활용한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상품은 생태·웰니스·교육 가치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활동 반경을 서부산권으로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지난 3월 부산 주요 여행업계와 현장 점검을 거쳐 상품성을 검증하고, 국가별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별 맞춤형 테마 상품을 구성했다.

상품은 크게 3개 시장으로 나뉜다. 구미주 관광객에게는 ‘ONDO 에코레

조너스(Eco Resonance)’를 제공한다. 에코센터 전문 해설·야생동물 치유센터 체험·선셋 에코테라피 등 프로그램과 프라이빗 차량 서비스가 포함된다.

대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봄 시즌 특화 ‘벚꽃 피크닉’ 상품을 운영한다.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도시락과 버스킹을 즐기는 감성 콘셉트로, 올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일본 관광객에게는 봄·가을 철새 관찰과 낙조 감상 중심의 ‘소규모 힐링·트레킹 투어’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자동차분야 2.8억, 에너지분야 14억

경북도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에너지 절약과 차량 운행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분야는 올해 경북 전역에서 총 6840대를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조기 마감된 안동과 예천 등 일부 시군은 물량을 조정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도는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적인 홍보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된다.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동일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해 사업비는 에너지 분야 14억원, 자동차 분야 2억7800만원 규모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모집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는 비사업용 차량만 해당되며,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교육청

경북교육기획단 본격 활동

경북교육청이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에서 ‘2026 경북교육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첫 협의회를 열어 2027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학교 현장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유·초·중·특수 교감과 일반직 사무관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과제 발굴,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분석 등 교육 정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경북=김준한 기자